# 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오후3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 | | |
|---|---|---|
| 찬 양 | 내 평생에 가는 길(470)<br>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469) | 다 같 이 |
| 조용한기도 | Prayer | 다 같 이 |
| 찬 송 | Hymn 9 | 다 같 이 |
| 기 도 | Prayer | 남영아 집사 |
| 교회소식 | Announcement | 인 도 자 |
| 성 경 | 마태복음 6;1-18 | 인 도 자 |
| 설 교 |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 이진우 목사 |
| 찬양과봉헌 | Hymn 486 | 다 같 이 |
| 축 도 | Benediction | 이진우 목사 |

■ 다음주 기도 : 박종갑 장로

## 예 배 와 모 임 안 내

| | |
|---|---|
| 주일1부 예배 | **오전 11시** |
| 주일2부 예배 | **오후 3시** |
| 수요성경공부 | **매수 오후7시(예정)** |
| 가정교회예배 | **매주 금요일(예정)** |

##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 | |
|---|---|
| 목회사역 |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
| 행정사역 | **박종갑 장로** |
| 양육사역 | |
| 찬양사역 | |

##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10월 1일 제9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LIBERTY COMMUNITY
#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쓴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경건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건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도외시한 신앙생활은 한 손 묶고 하는 농구경기와 똑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온전한 경건함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경건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편식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치우친 경건의 삶은 우리를 결코 경건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의를 닮아가는 경건의 도구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제가 될 수 있고,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고, 잘못된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조금도 흠 잡을 데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므로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경건의 행위가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거룩한 경건을 타락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할 때만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 사람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경건이 타락하게 되는 공통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 하다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의 길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경건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는 구약의 신앙전통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경건의 도구가 필요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경건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특별한 것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결코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함에 승부 거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결코 거룩해 질 수 없습니다. 경건해 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경건의 세 요소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특별이라는 것은 곧 타락의 모습입니다. 특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구제가 있어야 하고요,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일상의 금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강력한 무기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저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사는 까닭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딤후3:5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였습니다. 경건은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경건이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누가 갚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제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기도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금식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축복의 통로가 세상과는 틀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통로가 틀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 지역전도와 교회를 알리기 위해 우편으로 주보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주보발송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배 후에 9월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8월 선교적립금: $449.00)
4. 이번 주는 고국에 추석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인터넷 선교를 위해 자유교회 홈페이지를 준비 중입니다. 정식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http://cyworld.nate.com/libertycommunity**

### 지난주 헌금통계

| | | |
|---|---|---|
| 십 일 조: | $0.00 | |
| 감사헌금: | $40.00 | |
| 주일헌금: | $21.00 | |
| 특별헌금: | $10.00 | **합 계: $71.00** |

##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 믿음과 열정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복주사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